

## ‘부엔 비비르’(Buen Vivir) 담론 내부의 이념 노선에 대한 연구\*

조영현\*\*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Jo, Young-Hyun (2019), “A Study on the Currents of Ideology in the Discourse of ‘Buen Vivir’”**

### ABSTRACT

‘Good Living’ or ‘Sumak Kawsay’ can be defined as a way of life, and coexistence in harmony with nature and with other human beings. The Ecuadorian Constitution of 2008 recognizes a set of innovative concepts such as ‘Good Living’, and thus serves as a turning point in the country’s political history as well as in its vision of development.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explore the diversity of thought or ideology concerning the concept of Good Living. The body of thought is he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currents: the indigenist current, the socialist current and the post-developmental current. From the typology presented here, we affirm that these three currents maintain a dialectical confrontation among the hard critics of each current.

**Key Words:** Sumak Kawsay, El Buen Vivir, the indigenist current, the socialist current, the post-developmental current

### 들어가는 말

21세기 들어 안데스 지역에서 유행하는 개념인 ‘부엔 비비르’(El Buen Vivir)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공존과 공생의 삶을 지향한다. 이 용어는 안데스 원주민들의 우주관과 삶의 방식, 윤리 등에서 영감을 받은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를 현대적 개념의 스페인어로 번역한 것이다.

---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Young-Hyun Jo is a HK professor of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latin-jo@bufs.ac.kr).

특히 이 개념 속에는 사회적 평등 지향, 지속 가능한 환경, 서구 문명의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등이 담겨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유럽, 미국의 학계에서도 이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상이나 철학 분야뿐 아니라 발전정책, 정치영역, 환경과 생태학 분야의 주요 학회에서 ‘수막 카우사이’, ‘부엔 비비르’ 혹은 ‘비비르 비엔’(Vivir Bien)이란 용어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sup>1</sup>

이 용어가 빈번히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주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경제학자, 법률가, 인류학자, 원주민 학자, 사회운동 지도자 사이에서 사용되었는데, 에콰도르에서는 2006년 대선 과정과 2008년 제헌의회를 거치면서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제헌의회 의원들은 신헌법의 정신과 목표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했다. 일부 정당과 원주민 운동 단체, 제헌의회 의원들은 새로운 국가 체제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자연권(los derechos de la naturaleza), 원주민 자치권,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dad), 다민족국가(Estado plurinacional) 건설, 발전에 대한 대안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을 벌였다. 자연스레 이 모든 요소들과 연동된 개념인 수막 카우사이나 부엔 비비르 개념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욱이 부엔 비비르 개념이 새로 정권을 잡은 진보정부의 경제정책, 법률, 사회개혁, 복지정책들과 연결되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문제는 이 부엔 비비르란 용어에는 진보적 사회운동 담론과 정치적 이념,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신헌법의 정신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엔 비비르 담론을 마치 통일된 하나의 개념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정부의 이념 노선과 동일시한 학자들은 부엔 비비르 담론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엔 비비르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이념 노선과 경향들을 분석하고 유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부엔 비비르 개념을 유형화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한 학자는 레 콕(Le Quang)이었다. 그는 2013년 출간한 『생태사회주의와 부엔 비비르』(Ecosocialismo y Buen Vivir)란 저서에서 부엔 비비르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이념적 경향을 문화주의(la corriente culturalista), 생태주의(la corriente

1 수막 카우사이는 케추아어로 ‘충만한 삶’을 뜻한다. 볼리비아에서는 아아마라어로 수마 카마냐(Suma Qamañ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수마 카마냐는 스페인어로는 비비르 비엔(Vivir Bien)으로 번역된다. 에콰도르에서 쓰이는 비엔 비비르를 우리말로 ‘참 삶’, ‘참살이’, ‘잘 살기’, ‘실림’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비엔 비비르의 개념의 포괄적 함의를 다 담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원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cologista), 생태-마르크스주의(la corriente ecomarxista)로 분류해 분석했다. 자연에 의존해 삶을 영위하는 원주민들의 생존 문제와 그들의 경제적 빈곤, 기본적 권리에 있어서의 배제 문제가 서구 논리에 기초한 발전정책의 실패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생태-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생태적, 정치 사회적 대안의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태-마르크스주의의 특징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2013, 19-75).

베가는 부엔 비비르 개념 속에 내재한 다양한 이념 노선을 원주민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생태주의(페미니즘 포함)로 분류했다. 특히 그는 원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전통에서 생성된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주민주의를 공동체주의와 동일시했다(Vega 2014, 362-356).

이달고 카피탄(Hidalgo Capitan)과 그의 동료들은 2013년 발표한 「수막 카우사 이에 관한 여섯 가지 공개 논쟁」(Seis debates abiertos sobre el Sumak kawsay)이라는 논문에서 부엔 비비르 개념을 사회주의와 국가주의 노선, 생태주의와 탈발전주의 노선, 그리고 원주민주의와 파차마마주의(pachamamista) 노선의 세 그룹으로 묶어 분류했다. 이것은 각각의 이념 노선이 주장하는 바를 중심으로 유형화 한 것이지만 부엔 비비르 개념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달고 카피탄과 그의 동료들이 사회주의와 국가주의 노선을 한 그룹으로 한데 묶은 것은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태주의와 포스트발전주의(post-desarrollismo)를 한 그룹으로 엮은 것은 채굴주의 중심의 발전 노선에 대한 거부와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주민주의와 파차마마주의를 하나로 묶은 것은 원주민의 삶의 양태 속에 깃든 신화와 전통, 그리고 독특한 우주관이 어머니이신 자연과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기 때문이다(Hidalgo Capitan et al. 2013).

반헬스트는 원주민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post-estructuralismo)라는 관점에서 부엔 비비르 개념의 내부 노선을 분류했다. 그가 포스트구조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도한 것은 부엔 비비르 개념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서로 이질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혼재적 측면을 설명하면서 반헬스트는 근대성 비판, 탈식민성, 다원주의, 탈발전주의 등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Vanhulst 2015).

끝으로 쿠비요 게바라는 부엔 비비르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이 내포한 이념적 경향을 원주민주의, 사회주의, 포스트발전주의로 유형화했다(Cubillo-Guevara et al. 2014). 그러나 각각의 경향들의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원주민주의와 문화주의, 사회주의와 생태-마르크스주의, 포스트발전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포스트채굴주의(post-extractivismo)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부엔 비비르 개념의 세부적 이념 노선을 분류한 선행연구들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노선이 보이는 강조점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한계점은 부엔 비비르 담론의 내부 이념적 성향을 분류하는데서 머물렀다는 것이다. 각 노선 간의 특징과 정치적 혹은 이념적 갈등을 에콰도르 정치 상황이나 정권과 연계해서 분석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부엔 비비르 담론 내부의 이념적 노선을 분류한 후 각 유형의 특징과 서로 간의 입장 차이, 그리고 상호 영향 관계를 라파엘 코레아 정부와 연계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엔 비비르 담론의 출현 상황을 간단히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부엔 비비르를 주창하는 이론가들 중에서 특정한 이념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사상과 입장을 분석한 후 각 노선의 특징들을 드러낼 것이다.<sup>2</sup> 끝으로 각 노선들 사이의 이념적 역학관계를 갈등과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는 부엔 비비르 담론과 에콰도르 정치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라파엘 코레아 정부와의 관계도 포함시킬 것이다.

## 부엔 비비르 담론의 출현

부엔 비비르 개념은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이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는 우주관, 삶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이라는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원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보다 관계성에 토대를 둔 공동체적 삶을 중시했다. 에스터만이 안데스 철학에 대해 연구한 후 이 지역의

2 각각의 노선은 쿠비요가 이용한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란 기준에 의거해 원주민주의, 사회주의, 포스트발전주의로 분류했고, 각 노선의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파블로 다발로스, 레네 라미레스, 그리고 알베르토 아코스타를 선정했다. 이들을 선정한 것은 이 세 지식인들의 저작들이 비교적 학계에서 인용 횟수가 높고, 각 이념 노선과 일치하는 실천적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적 사유가 존재론 자체보다 관계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천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상호성, 상응성, 상보성의 원리도 안데스 지역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관계성을 보조하는 것일 뿐이다(Estermann 1998; Macas 2010b). 안데스 원주민들의 삶의 철학과 우주관을 요약한 핵심 개념은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이다. 이 용어는 원주민 종족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유는 유사하다(Jo and Kim 2012, 133-135).

캐서린 월시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부엔 비비르 개념이 안데스-아마존 원주민들의 고대 사상에서 출현한 삶의 철학이고 발전에 대한 대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Walsh 2009; Macas 2010a; Davalos 2008). 1980년대 이후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환경파괴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원주민들은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뿌리를 둔 해결책을 고민했다. 부엔 비비르 개념은 1990년대 초반 당시 유행하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를 원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집단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아마존의 사라야쿠 지역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우주관, 신화, 신앙, 철학과 연결해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했다. 원주민들은 나름대로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과 대안을 고민한 것이다. 그들의 대안은 수막 카우사이로 수렴되었다. 이 표현이 1992년 공식적으로 아마존 계획(Plan de Amazona)에 명시되었다. 그 이후로 파스타사(pastaza)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이 개념을 사용하였고, 안데스 원주민운동 단체들이 수막 카우사이나 부엔 비비르 개념을 자신들의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Cubillo-Guevara 2017).

아마존의 원주민 인류학자 출신인 카를로스 비테리는 원주민의 우주관 속에는 서구의 발전개념과 같은 물질의 축적에 따른 부의 개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주민 사회의 우주관은 사람이 인생에서 갖고 있고 가져야 하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우주관에는 발전 개념이 없다. 즉, 전과 후를 상정하는 삶의 직선적 과정 개념이 없다. 서구 사회에서처럼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그런 발전과 저발전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이항식 자체가 없다. 마찬가지로 물질적 재화의 부족이나 축적 유무에 따른 부나 가난의 개념도 없다(Viteri 2002, 1).

그는 원주민들의 우주관과 그들의 삶의 철학을 부엔 비비르로 표현하고 수막 카우사이와 연결시켰다.

그러나 부엔 비비르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신적 물질적 조건을 창조하고 그것을 찾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사명과 관련된 전체적인 비전은 존재한다. 이 부엔 비비르는 ‘조화로운 삶’으로 키추아이어로 루나 슈미(runa shimi)로 표현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알리 카우사이(alli kausai)나 수막 카우사이(sumac kausai)이다(Viteri 2002, 1).

비테리는 부엔 비비르를 서구 근대 세계관에서 말하는 발전이나 서구식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다. 즉 물질재와 비물질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자연을 포함한 공동체와의 공존을 위한 조화로운 삶, 충만한 삶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시켰다(Cubillo-Guevara 2017, 33).

2000년대가 되자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원주민 지식인들이 점차 수막 카우사이와 관련된 글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카를로스 비테리는 초기 수막 카우사이 관련 사상을 정리하는데 기여했다. 그 밖에도 얀파라(Yampara), 메디나(Medina), 에스테바(Esteva)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부엔 비비르 개념은 안데스 지역 밖에서도 관심을 끄는 사상이자 담론으로 발전했다. 학계에서도 경제발전정책이나 안데스 원주민들의 삶의 철학인 수막 카우사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점차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이 수막 카우사이와 부엔 비비르 관련 논문과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에콰도르와 2009년 볼리비아의 신헌법 제정을 전후로 촉발된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논쟁 때문에 단순한 담론 차원을 넘어 새로운 체제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획을 함축한 이념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었다. 이것은 부엔 비비르 개념이 일부 사상가들이나 이론가들의 담론의 범주를 넘어 정책과 법률화를 통해 제도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실상 1992년부터 에콰도르 제헌의회 소집 전까지를 부엔 비비르 개념의 출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을 전후로 해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 그리고 이념과 사상을 가진 안데스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의 지식인들이 부엔 비비르에 대한 생각과 제안들을 발표하면서 논의의 장이 확장되었다.<sup>3</sup> 2008년부터 수많은 책과 논문들이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문화, 환경 관련 분야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 시기부터 부엔 비비르 담론이 단순히 사변적 차원이 아닌 정책이나 실천과 연계되기 시작했으며 정치과정과도 연동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3 아르투로 에스코바르, 아나발 키하노, 레오나르도 보프, 프랑수아 후타르, 조세프 에스터만, 가르시아 리베라, 다빗 초케우앙카, 페르난도 우이나쿠니, 파블로 다발로스, 알베르토 아코스타, 에두아르도 구디나스, 하비에르 알보, 루이스 마카스, 레네 라미레스 등이 대표적이다.

2008년은 부엔 비비르 담론 역사에서 분기점이 된 해이다. 각기 다른 사상적 경향들이 정치지형 변화와 맞물려 자신들의 이념적 노선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래 국가의 새 틀을 짜는 자리인 제헌의회는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이 자신의 이념을 놓고 다투는 각축장으로 변했다. 여기서 가장 큰 논쟁점은 부엔 비비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였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실천 문제는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국가발전계획(Plan Nacional para el desarrollo)의 수립 과정에서 이념 노선 간 충돌이 증폭되었다(Ramírez 2013). 우파의 보수진영과 전통 정당들이 국민의 외면을 받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 진보세력들은 모두 부엔 비비르를 자신들의 미래의 비전이자 전략적 담론으로 받아들였지만 발전과 불평등 문제,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어느 것을 가장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서로 이해를 달리했다. 이런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면 불평등의 해소에 더 방점을 둔 사회주의 경향, 생태주의와 기존의 발전주의에서의 탈피를 주장하는 포스트발전주의, 정체성과 문화를 강조한 원주민주의 경향으로 크게 묶을 수 있다.

## 부엔 비비르 담론 내부의 다양한 이념적 노선

### 원주민주의 노선

부엔 비비르 담론을 주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원주민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지식인의 특징은 무엇보다 수막 카우사이라는 용어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케추아어인 수막 카우사이는 '좋은 삶', '조화로운 삶', '충만한 삶'을 의미하며 스페인어로 표현하면 Buen Vivir가 된다. 수막 카우사이는 안데스와 아마존 지역의 토착원주민들의 우주관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연과 사회, 공동체와 조화롭게 공존 공생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들의 전통, 신앙, 우주관, 삶의 철학, 윤리,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토양에서 출현한 것이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지혜이다. 따라서 부엔 비비르 개념은 원주민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원주민주의를 '원주민 문화주의'라고 분류하기도 한다(Le Quang and Vercoutere 2013). 원주민주의를 부르는 또 다른 별칭으로 '파차마마주의'(pachamamismo)가 있다. 안데스와 아마존 원주민들이 부르는 파차마마는 '어머

니이신 대지를 가리키는데, 대자연과 그 속에 깃든 신성이나 우주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원주민들에게는 생명을 생산하고 부양하고 보호하는 어머니이신 자연은 살아있는 생명이자 신의 반열에 올라있는 존재다. 파차마마주의는 이런 원주민의 자연관에 토대를 두고 자연에 대한 존중과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생태주의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원주민주의가 지닌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의미로 파차마마주의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신비하고 심오한 지혜를 내포한 원주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Hidalgo Capitan and Cubillo Guevara 2017, 9).

이 노선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은 대부분 원주민이거나 원주민 문화에 호의적인 학자들이다.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학자는 원주민 출신인 베테리, 마카스, 말도나도, 삼바냐와 메스티조인 다발로스 등이 있다.<sup>4</sup> 수막 카우사이 담론은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에서 가장 많이 발전했다. 두 나라 학자들 사이의 빈번한 학술적 교류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이 노선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루이스 마카스<sup>5</sup>와 파블로 다발로스가 있다.

루이스 마카스는 수막 카우사이를 원주민이나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불완전한 현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원주민들이 항의나 하고 저항만 하지 사회 변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라는 사회 일각의 비판 앞에서 수막 카우사이를 원주민들이 제안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Macas 2010a, 14). 마카스는 서구 문명이 주도한 현재의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고, 신자유주의 체제뿐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도 인류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물질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생산수단의 사유화, 자연의 상품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서구 문명을

4 볼리비아에서 이 노선에 해당되는 지식인은 얀파라, 메디나, 알보, 우아나쿠니, 초케우앙카, 에스터만 등이 있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역사 정치적 상황이 유사한 두 국가는 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여 원주민과 관련된 주제들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호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다. 현재 좌파정권이 함께 권력을 장악하고 탈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특히 볼리비아는 과거 식민유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지역보다 강하다.

5 루이스 마카스(Luis Macas)는 키추와 원주민으로 원주민운동의 지도자 출신 정치인이자 지식인이다. 대학에서는 인류학과 언어학을 공부했지만 대학원에서는 법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에콰도르 최대 원주민운동 조직인 에콰도르원주민연맹(CONAIE)의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원주민운동을 명실상부 정치적 행위자 수준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그는 1990년 원주민봉기를 주도하며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1996년에는 파차쿠티운동당(el Movimiento Pachakutik) 소속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치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2006년에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서구 그리스도교 문명의 모태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자연과 인간의 관계 단절에 기반을 둔다. 이 체제는 인류를 통제하고 발전모델의 확장을 향해 무한히 질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을 조정하고 자본을 축적하도록 강제한다. 이 체제는 다른 삶의 방식들을 해체시키는 파괴자이며, 에고이스트적이며 헤게모니까지 가지고 있다. 게다가 다른 방식의 삶을 허락하지 않고 타자를 유린하는 폭력에 기초한 문명이다. 서구 그리스도교 문명의 존재로 인해 남아 알라에서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오던 토착 민족의 사회조직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Macas 2010b, 33).

마카스는 현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유'와 '다른 삶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류의 공존과 공생을 담보할 수 있는 삶의 철학이 공동체성의 원리에서 자양분을 공급받는 수막 카우사이라고 주장했다.

수막 카우사이는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서 기원한다. 공동체적 삶의 체계 자체가 본질에 해당한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일상의 실천과 생활에서 드러난다. 자본주의 모델의 공격과 식민성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효한 우리 문명의 모태이자 핵심인 것이다(Macas 2010a, 14-15).

파블로 다발로스<sup>6</sup>도 마카스처럼 수막 카우사이가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이 안데스 지역 원주민운동의 정치 프로젝트의 성격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에게 수막 카우사이는 원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가치인 공존의 삶의 원리들을 현대 사회에 적용해 재구성한 역사적·정치적 프로젝트인 것이다(Davalos 2012; 2013b).

다발로스를 비롯한 원주민주의 노선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수막 카우사이와 부엔 비비르가 기본적으로 발전주의와 채굴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 기획이며 아직도 잔존하는 식민적 잔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담론이라는 데 동의한다(Davalos 2008; Macas 2010b; Walsh 2009). 특히 그는 정복과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위계적 인종차별주의가 현재에도 존재하며 원주민, 흑인 등을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고 본다. 그는 '국가의 탈식민화'를 천명하면서 에콰도르를 다민족국가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6 에콰도르 가톨릭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정치가이다. 2005년 알프레도 팔라시오(Alfredo Palacio) 정권 아래에서 경제부 차관을 역임했다. 당시 경제부 장관은 라파엘 코레아였다. 오랫동안 에콰도르원주민연맹의 고문을 역임했고, 2018년 현재 파차쿠틱운동당의 키토시 시장후보이다.

(Davalos 2003). 케서린 월시는 에콰도르라는 국가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국민 국가의 토대 위에 세워졌는데, 이 체제는 원주민들과 흑인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전통과 문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충분한 대화도 없었으며, 오직 유일한 모델로 부르주아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가 모델만 강요받았다는 것이다(Walsh 2009, 63). 한마디로 원주민들에게 국민국가모델은 단일민족적, 단일문화적, 식민적, 배제적 국가모델이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근대국가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에콰도르는 흑인과 원주민에게 불의한 국가였다. 주류 백인들이 지배한 사회였으며 원주민과 흑인들은 자신의 조국에서 주인으로 살 수 없었다. 배제와 억압, 편견과 무시, 불의와 비민주적 현실이 일상이었으며, 원주민들이 백인이나 메스티소와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체제는 아니었다. 사회주의자들도 가난과 불평등, 불의의 문제를 계급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았지 종족과 인종 문제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초기 원주민운동의 지도자들은 1990년대 초반 사회운동이 부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자신들의 문화, 영토, 법률, 자결권 인정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주장은 이미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에콰도르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인종과 문화, 전통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의 토대 위에서 상호존중, 연대, 평등,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민족국가는 한 국가 내 다양한 민족 공동체의 언어, 문화, 종교 뿐 아니라 충분히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와 일정한 주권이 인정되는 국가 모델이다. 고유한 민족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체제인 것이다(Almeida Reyes 2011, 276-291). 원주민들은 다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가 자신들의 고유한 집단 정체성과 문화적, 집단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고유한 민족문화의 발전과 상호 공존을 위해 원주민주의 노선의 지식인들은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dad)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 상호문화성은 문화 간에 상위문화와 하위문화로 서열화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상호문화 개념은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문화 간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원주민운동이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헤게모니를 지닌 지배문화가 다른 문화를 억압하고 배제했던 과거의 문화적 권력관계의 패턴을 극복하고 상호공존하기 위한 것이다 (Walsh 2009, 41).

다발로스와 마카스를 비롯한 원주민주의 지식인들은 한결같이 수막 카우사이 가 신자유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일 뿐 아니라 서구 근대 발전론의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의 위기가 과도한 자본축적과 소비, 자원의 대상화와 상품화, 경쟁과 에고이즘이라는 철학에 기초한 자본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단언한다. 서구 자본주의의 뒤에 지나친 주체 중심의 철학과 개인 중심의 유럽중심주의적인 근대 사유체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원주민주의는 신자유주의 비판, 자연의 대상화 문제, 발전주의의 결함에 대해서는 포스트발전주의 노선과 유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포스트발전주의 혹은 생태주의 노선

포스트발전주의 노선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그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코레아 정부를 비난한 세력이다. 생태주의 관점에서 경제발전 정책을 비난하고 정부의 공약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데 앞장섰는데, 특히 사회정치적 합의의 결과물인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에콰도르에서 이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은 진보노선의 사회운동을 상징하는 정치가인 알베르토 아코스타(Alberto Acosta)이다.<sup>7</sup> 그는 부엔 비비르가 원주민 철학과 지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주민적인 것이 부엔 비비르 개념을 구성하는 유일한 원천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이 담론이 원주민의 토양에만 뿌리를 두지 않고 보편적 지식과 원리에서도 빛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주민 비전에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인 비판사상, 그리고 서구의 학문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Cubillo-Guevara et al. 2014).

포스트발전주의 노선의 지식인들은 다양한 현대 학문의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학문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다. 원주민운동

---

7 에콰도르 FLACSO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고 조국동맹의 창설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라파엘 코레아 정부 제1기 에너지광산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08년 제헌의회 의장으로 에콰도르 신헌법 제정을 주도했다. 부엔 비비르 개념이 헌법의 핵심 정신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여당인 조국동맹과 결별한 후 파차쿠티크와 MPD가 전략적으로 연대한 다민족국가연합의 추천으로 2013년 대선후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농민운동, 생태운동, 조합주의운동, 평화주의, 페미니즘, 해방신학, 근대성/탈식민주의 연구 그룹 등이 양산한 학문적 성과들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다(Hidalgo-Capitan 2013, 28).

아코스타의 사상의 핵심은 포스트채굴주의(post-extractivismo)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사상의 토대이자 출발점은 생태주의이다. 그는 지구온난화, 생물종 다양성의 소멸, 대기오염, 불평등 심화, 끊이지 않는 전쟁,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등 현재의 인류가 직면한 다차원적 위기의 뿌리에 서구 근대 자본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토대를 둔 발전관이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트발전주의 노선은 근대성이 서구의 합리성, 이성에 근거해 있다는 것에 반대한다. 키하노, 미놀로, 두셀, 에스코바르 등이 주축이 된 라틴아메리카 근대성/식민성 연구 그룹의 성과를 수용해 근대성의 또 다른 얼굴이 식민성이고,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것만이 아니라 힘과 폭력에 근거해 타자들을 억압한 측면도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Acosta 2011; Quijano 2012; Mignolo 2005). 그리고 서구의 직선적 시간관이 과학과 결합해 무한한 진보의 환상을 심어놓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진화한 서구식 발전 개념은 근대화와 산업화로 상징되고 경제성장이라는 유일한 지표로 평가되기 때문에 삶의 다른 영역들과 자연을 이차적인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량, 무역규모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생산증대가 경제성장이고 발전이란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경제 중심적 논리가 발전 자체를 경제성장이란 협소한 범주로 축소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시장중심 논리에 기초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촉진시키는 성장을 만들어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경제성장 지상주의' 시각이 다른 많은 가치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Acosta 2011; Jo and Kim 2012).

아코스타는 라틴아메리카는 이런 자본주의적 발전논리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대륙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것은 채굴주의(extractivismo)의 폐해이다. 그에 따르면 1492년 이후 서구와 접촉하게 된 라틴아메리카는 '나쁜 발전'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다.

채굴주의는 500년 전부터 굳어지기 시작한 축적의 양식이다. 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정복, 식민화와 함께 세계 경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축적의 양식은 그 때부터 출현하던 자본주의의 대도시 중심부의 요구로 결정된 것이다. 세계경제체제가 구조화되기 시작하고 일부 지역들은 일차산물, 즉 원자재 생산과 채굴에 특화되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지역은

제조업 관련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자는 자연을 수출하고 후자는 수입하게 된 것이다(Acosta 2011, 85).

그는 세계의 패권국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일차생산물과 광산을 비롯한 천연자원 수출 모델을 강요하면서 고착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식민시기를 벗어나 독립한 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라틴아메리카에는 일차생산품, 석유, 광산 등의 채굴 산업에 의존한 경제구조가 한 번도 제대로 개선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코스타는 채굴주의를 단순히 광물자원과 석유, 가스 등에 한정하지 않고 단일경작에 의해 가공 없이 직접 수출하는 농산물이나 산림자원, 그리고 넓게는 수산자원까지 포함해서 이해한다.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기 위해 우리는 천연자원을 가공하지 않은 채 수출을 위해 대량으로 외부로 이전시키는 활동을 가리킬 때 채굴주의라고 부른다. 채굴주의는 광물 혹은 원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농업, 임업, 그리고 수산업 분야에도 채굴주의가 존재한다(Acosta 2011, 85).

그는 생산지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수출만을 위해 생산되는 커피와 같은 단일재배 상품도 채굴주의의 범주에 넣은 것이다.

아코스타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를 표방하는 진보정부에서도 이런 경제발전모델이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보정부들은 가난을 극복하고 교육, 보건, 인프라 등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굴주의가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예전의 채굴주의가 패권국들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주로 이용되었다면, 그가 새롭게 명명한 신채굴주의(neo-extractivismo)는 에콰도르 같은 생산지 주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구실로 진행된다는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 그러나 아코스타에게는 구채굴주의나 신채굴주의는 결국 구조적 측면에서 같은 것이다.

구채굴주의와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정부들이 주도하는 신채굴주의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초국적 자본주의 하에서 전지구화에 종속된 국제적 유착 관계가 신채굴주의에서도 유지된다. 단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과 연결된 채굴 인클로우저와 주변부 지역에서는 영토적 파편화가 증가한다. 단순히 현상유지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채굴 분야에 있어 사회적, 환경적 충격이 더욱 심해진다(Acosta 2011, 101).

아코스타가 지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채굴을 담당하는 에콰도르의 국영기업들이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다국적기업들에 종속되어 있어 국영기업도 다국적기업

과 같은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가 볼 때 진보정부도 신채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석유와 광물을 채굴해 파는 것이 가장 빨리 수익을 증대하는 길이며 경제성장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손쉬운 길이라는 유혹 때문이다(Acosta 2011, 102-103). 그러나 그가 문제로 여기는 것은 이런 채굴로 얻은 경제적 이득과 사회, 환경적 충격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코스타는 생태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부엔 비비르를 서구식 발전주의와 채굴주의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한다.

채굴주의 경제는 우선적으로 원자재 수출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시장 앞에서 굴욕적인 것이고, 대지의 어머니인 자연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이다. 우리를 발전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 봄 시기를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급히 원자재의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발전의 대안으로서 부엔 비비르는 훨씬 덜 축적하는 것을 지향한다(León and Burch 2012, 28에서 재인용).

아코스타는 환경위기 앞에서 자연을 하나의 개발 대상이자 소비해야 하는 자원과 상품으로 전락시킨 서구 자본주의 발전모델과 채굴주의를 비판했다. 특히 인간만이 세계의 주인이고 주체라는 오만한 인간중심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인간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생명과 생태중심 사고로 전환할 것을 주창했다(Cubillo-Guevara et al. 2014, 46; Jo and Kim 2012). 그리고 에콰도르 헌법에 자연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연권을 명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는 구디나스와 함께 자연은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파차마마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무관하게 자연이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런 인정은 자연이 인간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 혹은 대상(혹은 사물들의 총체)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자연을 하나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Gudynas 2011a, 245).

구디나스와 아코스타는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명들의 총합체로 유기적 존재이며 인간의 인정, 필요,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자연 자체가 본질적이고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승격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 없이 생명도, 인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Gudynas 2011a; Jo and Kim 2012, 140-155).

요약하자면 아코스타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근대성, 서구의 발전관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부엔 비비르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내포한다. 자신과의 조화(armonia con mismo mismo), 공동체나 사회와의 조화(armonia con la comunidad o la sociedad)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armonia con la Naturaleza)이 그것이다. 여기서 자기 자신과의 조화는 다양한 종족, 인종, 민족으로 이루어진 에콰도르 국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지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율, 자결을 인정하는 선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주민주의 노선이 주장했던 다민족국가와 연결되는 것이다. 사회와의 조화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포스트자본주의(post-capitalismo)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포스트자본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탈자본주의이다. 자연과의 조화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생태중심적 세계관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가 말하는 부엔 비비르 개념 속에는 다민족국가, 자본주의 극복, 생태중심주의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Cubillo-Guevara et al. 2014, 45-46). 그에게 부엔 비비르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채굴주의를 벗어나는 포스트채굴주의를 의미한다. 동시에 자본주의의와 발전주의를 극복하는 포스트자본주의와 포스트발전주의를 내포하기도 한다. 그에 의하면 채굴주의를 극복하고 포스트채굴주의로 나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에콰도르가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유토피아인 것이다(Acosta 2010, 21-52).

## 사회주의 노선

부엔 비비르 담론의 사회주의 노선은 수막 카우사이와 사회주의 체제의 공존을 모색한다. 이 노선에 속한 지식인들은 부엔 비비르를 사회 정의와 평등의 실현, 혹은 단순히 빈곤 축소와 불평등 해소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부엔 비비르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 경제 구조와 권력 관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막 카우사이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자 정부의 이념을 대표하는 레네 라미레스(René Ramírez) 장관이다. 그는 조국동맹(Movimiento Alianza PAIS)의 주요 창시자 중의 한 명이며, 라파엘 코레아정부에서 기획발전부 장관과 과학기술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부엔 비비르를 위한

국가발전계획』의 기획자이자 출판 책임자였다. 그는 에콰도르 가톨릭대학교와 FLACSO 대학의 경제학 교수 출신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자 정책가로 인정받고 있다.

레네 라미레스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주창한 이래 라틴아메리카 좌파 사이에서 유행하던 '21세기 사회주의'를 부엔 비비르와 연결시켜 언급했다.<sup>8</sup> 그는 에콰도르와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진단하고 에고이스트적인 개인주의, 사회적 불평등, 인종차별주의, 소수의 지나친 자본축적, 자연의 착취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 상황을 지적하며 아코스타처럼 그것을 '나쁜 발전'이라고 단죄했다(Ramírez 2010; Cubillo-Guevara et al. 2014, 39). 특히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라파엘 코레아 집권 초기부터 21세기 사회주의 실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생태경제, 코뮌경제, 사회경제, 연대경제의 의미를 함축한 미래에 실현되어야 할 사회주의로 21세기 사회주의를 언급한 것이다.

2010년 볼리비아의 부통령 가르시아 리네라(García Linaera)는 마리아테기가 강조했던 잉카시대의 공동체주의에 토대를 둔 사회주의를 재해석하면서 '안데스 공동체 사회주의'(Socialismo Comunitario Andino)라고 명명했다. 리네라는 네오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안데스 공동체주의를 재해석한 것이다.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마르크스주의와 원주민단체 지도자들 사이에 빈번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급문제와 종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계급문제와 종족문제 사이의 상호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Cortes 2011, 6). 볼리비아 정부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라미레스는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의 친사회주의 노선의 학자들을 초청해 '수막 카우사이와 사회주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후부터 '수막 카우사이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정부 여당인 조국동맹 정당의 핵심처럼 여겨졌다(Vanhulst 2015, 10). 점차 수막 카우사이 사회주의는 라파엘 코레아 정부가 실현해야 할 이상적 사회주의로 선전되었다.

8 보론에 따르면 차베스는 사회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자본주의 폐해인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윤리, 둘째,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 민주주의 중대, 셋째, 평등과 자유의 조화, 넷째, 공동체적 소유권, 자율의 확대(Borón 2010, 112). 그러나 이런 21세기 사회주의는 내실 있는 이론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20세기의 실패한 국가사회주의와의 차별성만을 강조하는 선언적 수사에 머물렀다.



라미레스가 기획하고 출판해서 사회주의 노선의 입장이 반영된 『부엔 비비르를 위한 국가발전 2013-2017』은 부엔 비비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환경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며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형태이다. 조화, 평등, 균형, 연대이다. 부유함이나 무한정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 이 분배와 사회적 연대의 이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의 이상과도 다르다. 부엔 비비르는 발전개념(서구전통 안에서 유효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아이디어이다. 그리고 더 광범위한 뜻을 내포한 진보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 아니다. 단순한 경제성장만을 합축하고 있는 발전 패러다임과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사회 조직들의 우선적 요구들에 부응하는 해방의 의미를 담은 사회적 대안이다 (SENPLADES 2013, 3-6; Vanhulst 2015, 10).

라미레스에게 수막 카우사이 사회주의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체제이다. 그러기 위해 경제 성장이 공공정책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생태의 지속 가능성 확보, 문화의 다양성 보장, 사회적 참여 증진, 사회적 평등 실현, 삶의 질과 복지 향상, 생산의 다양성과 경제 안정은 수막 카우사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데 거쳐야 할 과정이 된다(SENPLADES 2013, 17-24). 라미레스는 부엔 비비르 개념이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유기적 개념임을 강조하며 “부엔 비비르 혹은 수막 카우사이의 필요의 충족, 삶의 질과 존엄한 죽음의 달성, 사랑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 모두가 건강한 자기실현, 그리고 생물종다양성과 인간 문화의 지속을 위한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 안에서의 평화”라고 주장했다 (Ramírez 2010, 61).

또한 수막 카우사이 사회주의를 ‘생태-사회주의’(biosocialismo)와 ‘공화적 평등주의’(igualitarismo republicano)라는 말로도 사용했다. 전자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한 용어이다. 특히 그는 앞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통해 물질적 필요의 충족 문제를 강조했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다민족국가를 완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Ramírez 2010, 61-74).

라미레스가 말하는 수막 카우사이 사회주의의 시대는 결국 자본주의가 극복된 포스트자본주의(poscapitalismo) 시대를 말한다. 그는 4가지 단계를 거쳐 수막

카우사이 사회주의가 완성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단계, 둘째는 포스트신자유주의, 셋째는 시장 사회주의(socialismo de mercado), 넷째는 수막 카우사이 사회주의이다(Ramírez 2010, 68-72).

부엔 비비르 담론 내부의 사회주의 경향의 지식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레네 라미레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라파엘 코레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노선의 지식인들은 문화적 정체성이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보다는 공정한 부의 분배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에 일차적 관심을 둔다(Vanhulst 2015, 14). 그리고 사회주의 경향은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하지만 원주민주의 노선이 거부한 서구에서 발전한 근대성 비판에 집중하거나 근대성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특징을 보인다(Vanhulst 2015, 14).

## 부엔 비비르 담론과 이념 갈등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외채 경감과 재협상, 자국 내 미군기지 주둔 반대, 제헌의회 소집 등의 공약을 내건 전 경제부장관 라파엘 코레아가 2006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에콰도르에서는 경제정책의 변화나 신자유주의의 종식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많은 진보진영의 인물들과 단체들이 그를 지지했고 한때 소원했던 원주민운동들도 그에게 비판적 지지를 보냈다. 국민들과 진보진영의 지지에 힘입어 라파엘 코레아 정부는 2007년 9월의 제헌의회 선거, 2008년 새 헌법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연승가도를 달렸다. 국회 해산과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라파엘 코레아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를 주도하던 원주민운동은 이미 예전의 영향력을 잃은 상태였다. 2006년 에콰도르원주민연맹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루이스 마카스는 2% 남짓한 지지를 받아 1차 투표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한때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보이면서 부카람과 하밀 마우앗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원주민운동 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새로 출범한 구티에레스 정권과 결탁한 이후에 일어났다. 주요 원주민 지도자들이 내각에 합류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으나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공약과 달리 신자유주의 노선 정책을 채택하고 사법부 파동과 부패 등의 실정으로

물러나면서 원주민운동도 국정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국민들로부터 운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되면서 예전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집권 후 친 민중정책, 복지확대와 일련의 개혁정책을 실시하면서 보수세력들과 갈등을 빚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지지가 필요했다. 원주민운동은 2006년 대선 과정 중 결선투표에서 라파엘 코레아 후보를 지지한 후 소소한 정책적 대립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연대는 외형적으로 2008년 제헌의회 소집과 신헌법 승인 국민투표 때까지 계속되었다.

2008년 에콰도르 신헌법 제정 과정에서 에콰도르원주민연맹을 포함한 원주민 운동은 자신들의 숙원인 다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전략적으로 수막 카우사이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지했다.<sup>9</sup>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데 적극적이었던 환경운동 세력이나 진보진영의 비판적 지식인들도 새로 만드는 헌법에 부엔 비비르 개념을 넣는데 적극적이었다. 정부 여당인 조국동맹과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도 신자유주의식 발전에서 벗어난 새로운 담론과 논리가 필요했기에 신자유주의 이념이나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매력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던 부엔 비비르 개념을 전략적으로 차용했다. 이 개념은 내용 면에서 매우 이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 모호함 때문에 다양한 정치세력이나 사회운동 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Cubillo-Guevara 2016).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담론을 연구하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강한 국가가 주도하는 탈신자유주의 노선의 복지라는 시각에서 부엔 비비르 개념을 이용했다. 정부 출범 후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코레아 대통령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운동단체들이나 사회세력들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오래 유지하려 했다. 소소한 정책적 차이나 세부적인 이념의 차이에 매이지 않고 범 진보세력을 끌어안아 단일대오 연대를 유지해서 정권의 안정을 꾀하려 했다.

9 원주민운동과 파차쿠타 등 진보정당이 주장한 다민족국가 건설 문제는 환경문제와 채굴주의, 그리고 발전담론 만큼이나 라파엘 코레아 정부와 계속적인 갈등을 유발했다. 라파엘 코레아 정부는 다민족국가가 '국가 내의 또 다른 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도로 여겨지며, 이는 에콰도르 국가와 사회의 통일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또한 에콰도르원주민연맹과 같은 원주민운동단체들이 종족 문제에 매여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원주민운동을 정파적인 조합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두 세력은 더욱 강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Lee 2017, 188-189 참조).

그러나 여당인 조국동맹 조직 자체는 다양한 이종적인 세력들의 혼합체란 구조적 단점이 있었다.

조국동맹 창설의 핵심부는 전통적인 좌파 정당들의 구지도부, 새로운 사회적 좌파의 활동가와 지식인, 완전히 새로운 시민단체 출신의 인물, 무력 활동의 이력이 없고 오히려 대통령 후보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주변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반당파주의라는 지평 위에 이종적인 혼합세력이 탄생했다. 이러한 인적구성과 조직방식은 라미레스 키태로가 “국가 전체 구조의 중계계층 또는 사회 보조계층”이라고 명명한 계층으로 좌파세력의 사회적 스펙트럼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행동의 논리에 있어 방향 재설정, 특히 인물 지도력과 집단행동력 사이의 균형 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국동맹이 출발한 시점부터는 작은 지역적 단위에서 조직화를 달성하려는 시도에 따라 집단 행동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Ramírez Franklin 2013, 84).

원주민주의 노선을 따르는 지식인들과 생태주의, 그리고 서구 발전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인물들도 여당인 조국동맹 내각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정부 여당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실제 정책문제를 고민하는 정치세력과 진보진영의 지식인들 간에 보이는 시각차나 강조점의 차이는 부엔 비버르 개념에 대한 생각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부상했다. 무엇보다 환경과 개발 문제가 진보진영의 분열을 촉진시켰다. 이와 관련해서 구디나스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좌파정부들은 민주주의의 급진화나 인권 개념의 심화와 같은 여타 사상들과 더불어 환경적 정의를 위해 처음에는 도박을 걸었다. 그러나 일단 정권을 잡게 되자 원래의 여러 목표들을 방기하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개발주의에 갇히고 말았다. 채굴산업에 따른 원료의 수출이 이러한 태도 변화의 연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좌파와 진보주의는 서로 다른 정치적 기획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환경주의는 이러한 분열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Gudynas 2018, 156).

2005년 경제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천명하다 경질된 라파엘 코레아는 개혁세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는 집권 후 의심받기 시작했다. 오스발도 레온은 진보주의를 표방한 정부가 다시 원자재 공급자라는 종속적 역할에 빠지게 된 것을 비판하고 당시의 진보진영이 느낀 배신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회운동과 시민들의 시위가 요구한 대로, 조국동맹 정부는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원주민운동의 투쟁의 기본방침인 반신자유주의와 '부엔 비비르를 위한 전국 플랜'에 따라 자본주의를 크게 개혁할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원자재 채굴과 수출, 자연의 상품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던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계속 같은 노선을 유지하고 채굴주의와 오염산업을 확대하고 있다(Lecón 2012, 26-27).

2008년 신헌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진보진영의 전략적 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로 부엔 비비르라는 유사한 목표와 정치적 기획을 가진 것으로 알았던 진보세력들은 이제 공통점보다 차이점에 주목하고 각자의 세력에 유리한 정치적 이해에 집중하게 되었다. 광산개발, 물에 대한 기본권 선언 문제, 원주민 공동체 내 자원개발에 대한 원주민 단체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제헌의회 의장 출신인 아코스타 측 의원과 친코레아 측 노선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Ramírez Franklin 2013, 89).

부엔 비비르 담론과 관련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나타난 큰 변화는 코레아 정부와 여당이 당시에 유행하던 '21세기 사회주의'를 언급하면서 노골적으로 부엔 비비르 개념을 당시에 유행하던 21세기 사회주의와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이 개념을 21세기 사회주의의 변종처럼 해석했다.

코레아 정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약화되었던 국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국가가 선도적으로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강력한 국가 기능이 담보될 때 에콰도르 사회에 만연된 불평등과 불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수입이 뒷받침되어야 했고, 코레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와 복지 부분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적이 필요했다. 에콰도르 경제 구조상 원유와 광산에서 추출한 원자재들을 수출하는 것이 국가 재정 확보에 가장 빠른 길이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 경기의 호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곡선을 타던 때였다. 그러자 경제성장의 성과를 보여야 했던 코레아 정부에게 2008년 신헌법에 명기된 자연권,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원주민 영토의 자치권, 원주민의 집단적 권리 등과 같은 것들은 장애물로 인식되었다(Cubillo-Guevara 2016, 134-136).

2008년 신헌법 제정 당시에는 사회주의 노선의 지식인들이나 정부 모두 명시적으로 자연권에 대해 다른 두 노선과 유사한 입장을 유지했다. 즉, 채굴주의

정책보다는 자연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그러나 2013년 야수니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광산법을 개정한 뒤부터는 개발의 필요성을 두둔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3년 8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야수니 국립공원에 매장된 원유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발표는 그동안의 단순 채굴주의 노선 반대, 자연권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추구라는 정책 노선을 뒤집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Caria 2014, 140). 이 선언으로 부엔 비비르 담론과 그와 연관된 정책들을 철회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부엔 비비르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야수니 프로젝트의 공식적 폐기는 2008년 신헌법 제정 당시 연대했던 다양한 진보진영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비록 정부가 환경과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원유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이미 갈등 양상을 보이던 진보진영과의 대립을 심화시킬 뿐이었다. 이로 인해 원주민운동 세력이나 자원채굴에 기초한 발전전략에 반대하는 환경주의자들은 코레아 정부를 자신들과는 대화나 공조가 불가능한 세력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원주민운동 내부에서는 부엔 비비르 개념이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혼탁하게 되었다고 보고 이 용어 대신 원주민의 고대 삶의 양식 및 철학과 더 관련이 있는 수막 카우사이를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원주민 지식인들은 수막 카우사이 사상을 왜곡하는 사회주의 노선에 대해 수막 카우사이의 풍요로운 정신적 요소를 제거해 ‘복지 사회주의’로 폄하시켰다고 비난했다. 같은 맥락에서 원주민주의 노선은 포스트발전주의가 수막 카우사이 원리와 철학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점도 지적하며, 특히 여성주의, 서구식 환경주의, 진보 신학, 포스트모더니즘 등 비원주민적이고 이질적인 서구 개념들을 마구잡이로 차용한 결과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Cubillo-Guevara 2017). 원주민주의자들은 수막 카우사이가 서구 개념과는 다른 기초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대 서구 세계가 주도해 만들어 놓은 근대성, 자본주의, 발전관을 넘어 신문명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Caria 2014, 144).

포스트발전주의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사회주의 노선만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부엔 비비르 개념이 원주민 삶의 방식과 철학에서 유래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부엔 비비르 개념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며, 그 속에는 다양한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의 진보사상들이 함께 유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을 포함한 현대의 주요 사상과 전통적인 원주민 사상이 만나 창조적

개념으로 재탄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이론을 근거로 삼아 원주민주의 지식인들을 향해 편협한 원주민 근본주의나 퇴행적인 파차마마주의에 빠지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라고 충고한다(Cubillo-Guevara 2017, 62).

한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원주민주의 노선의 이론가들의 주장을 '유아적 원주민주의'(Indigenismo infantil)라고 폄하했다(Correa 2008). 특히 자원개발의 문제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보고, 현재 세계체제와 상황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처방을 주장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 2008년부터 이런 비판을 논쟁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표출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던 부엔 비비르 내의 사회주의 노선의 지식인들도 원주민주의를 파차마마주의(pachamamismo)라고 비난했다. 지나치게 이상주의에 빠져있으며 21세기 실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라는 견해다. 같은 맥락에서 포스트발전주의 노선에 대해 라파엘 코레아와 사회주의 노선은 '유아적 생태주의'(ecologismo infantil)에 빠져있어 자연권과 주민의 빈곤 해소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Cubillo-Guevara 2017, 62; Caria 2014, 155).

라파엘 코레아 정부는 자신들을 비난하는 세력 앞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 기본적으로 경제문제와 생태문제를 대립시키지 않고 기술진보를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León 2012, 27). 주민들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채굴주의의 불가피성을 옹호한 것이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 보건, 사회보장, 인프라 등을 위한 공공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채굴하는 것은 정당하며, 개발과 환경의 조화는 수막 카우사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Le Quang and Vercupitere 2013, 38-41). 또한 에콰도르는 천연자원은 풍부한데 가난하고 중속상태에 있어 '금 덩어리를 깔고 앉은 거지'(el mendigo sentado sobre un saco de oro)라는 조롱을 받는데 이러한 거지 상태를 면하려면 금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Caria 2014, 155). 이러한 전략은 생산과 수출의 토대를 총체적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라파엘 코레아 정부는 결국 기존 2008년 당시의 입장과 달리 자연권이 실질적 권리라기보다 '추정적인 권리'라는 입장으로 후퇴했다(Gudynas 2018, 155).

자본주의는 물질적 풍요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는 환경보존과 인간의 필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코레아 정부는 항변했다. 볼리비아의 부통령인 가르시아 리네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는 생산적 발전과 자연의 보호 사이의 긴장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공의 재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Le Quang and Vercupitere 2013, 40-41에서 재인용)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코레아 정부는 결국 환경에 대한 관리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화의 문제를 뒤로 미뤘고,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부의 채굴주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결국 중국 자본이 투입되면서 2016년부터 야수니 생태공원 지역에도 석유 개발이 시작되었다.

원주민주나 포스트발전주의 노선의 지식인들은 정부의 이런 인식이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의 자연권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의 두 노선을 대표하는 아코스타와 다발로스는 발전과 부의 재분배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개발을 신채굴주의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자국민보다 외부 패권국들의 경제적 이익에 봉사하던 구채굴주의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발로스는 국민 복지를 비롯한 사회정책을 위해 채굴하는 것을 정당화한 사회주의 노선에 대해 거짓 부엔 비비르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Davalos 2013b). 원주민주나 포스트발전주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노선에 대해 에콰도르가 예전부터 취하던 발전주의와 차별성이 없으며 ‘노쇠한 발전주의’나 ‘국가 중심 발전주의’를 탈피하지 못했다고 보았다(Cubillo-Guevara 2014, 35). 특히 포스트발전주의 노선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 조달을 위해 부엔 비비르 사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채굴주의 문제는 환경문제와 함께 사회주의 노선과 다른 두 노선 간의 의견 대립이 가장 심한 주제이다.

라파엘 코레아 정부는 2013년 이후 2017년 5월까지 다시금 부엔 비비르 개념을 행복 개념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SENPLADES 2013). 생산의 토대 자체를 변화시켜 다른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주장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포스트발전주의 노선과 사회운동들도 부엔 비비르 개념 논쟁보다 구체적인 문제인 채굴주의와 이것에 대한 대안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부엔 비비르가 무엇보다 채굴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임을 강조한 포스트채굴주의(post-extractivismo) 노선임을 재천명하는데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했다. 원주민운동도 수막 카우사이 담론을 옹호하며 부엔 비비르 개념 문제로 정부와



대화하기 보다는 저항과 반정부 투쟁 자체에 매달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현상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신임 당선자인 레닌 모레노(Lenín Moreno)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까지 계속되었다.

## 맺는 말

부엔 비비르 담론은 에콰도르에서 주요 좌파 지식인들과 진보적 성향의 정치세력이 한때 공유하던 중심 가치였다. 이 담론은 천재적인 한 사람의 독창적인 이론이나 주장이 아닌 수많은 이론가들의 공동작업의 소산이다. 부엔 비비르 담론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은 자연과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 불평등 해소, 문화의 인정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각 진영의 정체성과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충만한 삶과 발전의 문제를 성찰했다. 담론 차원에 머물 때는 갈등적 요소가 적었으나 점차 정치기획이나 정책과 연결되면서 상호 이념적 차이가 더욱 분명해졌다. 라틴아메리카 비판 사상과 서구의 진보적 학문 성과들이 유입되면서 담론의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졌다. 그러나 각 노선들 간의 상호 대립과 비판은 부엔 비비르 담론의 이론적, 실천적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도 있었다. 동시에 이런 특징은 각 노선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부엔 비비르 담론 내의 세 가지 주요 노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담론이 보수우파가 아닌 진보진영 속에서 발전했다는 점이다. 최소한 세 노선은 모두 반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며 자본주의 극복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세 노선의 대표적인 이론가들이 모두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한 때 같은 내각에 있었거나 같은 정당 소속이었다. 라파엘 코레아를 비롯해 아코스타, 다발로스, 라미레스 모두 경제학을 전공한 에콰도르 주요 대학 교수 출신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들 모두는 2008년 신헌법 제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것이 부엔 비비르 개념이 에콰도르 정치기획이나 사회변혁 과정과 밀접히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부엔 비비르 개념 내부의 각 노선의 차이는 무엇보다 각각의 경향이 보이는 강조점에서 드러난다. 원주민주의는 문화와 집단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원주민의 정체성과 문화가 수막 카우사이의 토대라고 주장한다. 식민주의를

초래하고 타자를 억압했던 서구 근대성과 자본주의 모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탈식민과 다민족국가 건설을 수막 카우사이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본다. 그리고 이 노선은 전근대적인 요소들 속에 남아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부활시키려 한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한 우주관이나 공동체주의가 그것이다.

사회주의 노선은 부의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고 불평등 해소가 충분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자연, 인종, 문화, 정체성보다는 계급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시한다. 자본주의가 극복된 후의 삶이 충분한 삶의 실현과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자체가 서구 근대 사상의 산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엔 비비르의 사회주의 경향은 라파엘 코레아 정부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노선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이 노선은 실질적으로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 적용되는 정책들의 이념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담론과 실천 사이의 모순이나 그 간극을 가장 잘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포스트발전주의는 생태주의와 연동되어 있다. 환경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충분한 삶의 척도 중에서 가장 핵심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환경 파괴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자원 착취형 서구 발전모델을 거부하고 탈발전주의를 외친다. 원주민적 기원을 강조하는 수막 카우사이 용어보다 부엔 비비르 용어를 더 선호한다. 이것은 포스트발전주의 노선이 현대의 다양한 비판사상의 학문적 성과들을 부엔 비비르와 접목시키는데 앞장서기 때문이다.

부엔 비비르 담론은 1960년대 후반 출현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종속이론 이후 한동안 사라졌던 라틴아메리카식 발전모델과 대안사회 논쟁을 다시 일으켰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종속이론이 경제 중심적 이론이었다면 부엔 비비르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통합적 관점에서 발전문제와 문명의 전환, 인식론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부엔 비비르 담론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아직도 구성중이고 동시에 재구성중인 개념임을 감안한다면 이 담론과 그와 연동된 다양한 실천들에 대해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Acosta, Alberto(2009), “Siempre más democracia, nunca menos,” in Alberto Acosta(ed.), *El Buen Vivir. Una vía para el desarrollo*, Quito: Ediciones Abya-Yala, pp. 19-30.
- \_\_\_\_\_(2010), “El buen (con) vivir, una utopía por (re)construir,” in Alejandro Guillen(ed.), *Retos del Buen Vivir*, Cuenca: PYDLOS, pp. 21-52.
- \_\_\_\_\_(2011), “Extractivismo y neo extractivismo: dos caras de la misma maldición,” in Miriam Lang and Dunia Mokrani, *Más allá del desarrollo*, Quito: Ediciones Abya-Yala, pp. 83-120.
- Alimonda, Héctor(2012), “Desarrollo, postdesarrollo y Buen Vivir: reflexiones a partir de la experiencia ecuatoriana,” *Crítica y Emancipación*, No. 7, pp. 27-58.
- Almeida Reyes, Eduardo(2011), *Ecuador: estado uninacional o plurinacional*, Quito: Autoedición.
- Borón, Atilio(2010), “El socialismo del Siglo XXI: notas para su discusión,” in SENPLADES, *Socialismo y Sumak Kawsay. Los nuevos desafíos del socialismo en América Latina*, Quito: SENPLADES, PP. 109-131.
- Caria, Sara(2014), “El porvenir de una ilusión: la ideología del Buen Vivir,” *América Latina Hoy*, No. 67, pp. 139-163.
- CONAIE(2012), “Proyecto político de la CONAIE 2012,” <https://conaie.org/2015/07/21/proyecto-politico-conaie-2012/>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l Ecuador*(2008).
- Correa, Rafael(2008), “Discurso del Presidente de la Republica, pronunciado en la ceremonia de clausura de la Asamblea Constituyente,” [25 de julio], <https://www.presidencia.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13/10/2008-07-25-Intervenci%C3%B3n-Presidencial-Clausura-Asamblea-Constituyente.pdf>
- Cortez, David(2011), “La construcción social del Buen Vivir en Ecuador,” [www.uasb.edu.ec/UserFiles/369/File/PDF/.../Cortez.pdf](http://www.uasb.edu.ec/UserFiles/369/File/PDF/.../Cortez.pdf)
- Cubillo-Guevara, A.P.(2016), “Genealogía inmediata de los discursos del Buen Vivir en Ecuador(1992-2016),” *América Latina Hoy*, No. 74, pp. 125-144.
- \_\_\_\_\_(2017), “El buen vivir en Ecuador: dimensiones políticas de un nuevo enfoque de economía política del desarrollo,” tesis doctoral en Departamento de Sociología, Trabajo Social y Salud Pública de la Universidad de Huelva.
- Cubillo-Guevara, A.P., A.L. Hidalgo-Capitan and J.A. Donínguez-Gómez(2014), “El pensamiento sobre el Buen Vivir. Entre el indigenismo, el socialismo y el posdesarrollismo,” *Revista del CLAD Reforma y Democracia*, No. 60, pp. 27-58.
- Dávalos, Pablo(2003), “Plurinacionalidad y poder político en 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Observatorio Social de América Latina*, Año III, No. 9, CLACSO, <http://biblioteca.clacso.edu.ar/clacso/osal/20110216125201/9davalos.pdf>

- \_\_\_\_\_ (2008), “Reflexiones sobre el Sumak Kawsay (El Buen Vivir) y las teorías del desarrollo,” <http://red.pucp.edu.pe/ridei/files/2011/08/100602.pdf>
- \_\_\_\_\_ (2012), “Sumak Kawsay (La vida en plenitud),” <https://www.puce.edu.ec/documentos/CuestionessobrelSumakKawsay.pdf>
- \_\_\_\_\_ (2013a), “Cosificación y extractivismo: elementos para la discusión,”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https://www.alainet.org/es/print/177779>
- \_\_\_\_\_ (2013b), “Las falacias del discurso extractivista,”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https://www.alainet.org/es/active/64266>
- Estermann, Josef (1998), *Filosofía andina. Estudios intercultural de la sabiduría autóctona andina*, Quito: Ediciones Abya-Yala.
- Gudynas, Eduardo (2009a), “Seis puntos claves en ambiente y desarrollo,” in Alberto Acosta and Esperanza Martínez, *El Buen Vivir. Una vía para el desarrollo*, Quito: Ediciones Abya-Yala, pp. 39-49.
- \_\_\_\_\_ (2009b), “Seis puntos clave en ambiente y desarrollo,” in Alberto Acosta (ed.), *El Buen Vivir. Una vía para el desarrollo*, Quito: Ediciones Abya-Yala, pp. 39-50.
- \_\_\_\_\_ (2011a), “Los derechos de la Naturaleza en serio,” in Alberto Acosta and Esperanza Martínez, *La naturaleza con derechos: de la filosofía a la política*, Quito: Ediciones Abya-Yala, pp. 239-286.
- \_\_\_\_\_ (2011b), “Buen vivir: germinando alternativas al desarrollo,”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No. 462, pp. 1-20.
- \_\_\_\_\_ (2018), “Cheguljuuia matsunun Hwankyungjuui hoorum (Los ambientalistas frente a los extractivismos),” in Institute of Latin America-SNU, *2018 Latin América, Latin América en la era de globalización*, pp. 149-162.
- Hidalgo-Capitán, A.L. and A.P. Cubillo-Guevara (2013), “Seis debates abiertos sobre el Sumak Kawsay,” *Iconos Revista Ciencias Sociales*, No. 48, pp. 25-40.
- \_\_\_\_\_ (2017), “Deconstrucción y genealogía del buen vivir latinoamericano. El (trino) buen vivir y sus diversidad manantiales intelectuales,”
- Jo, Young-Hyun (2013), “La descolonialidad y el Sumak Kawsay en Ecuador,” *Revista Iberoamericana*, No. 24, pp. 37-64.
- Jo, Young-Hyun and Dal-Kwan Kim (2012), “Ecuador Wonjumin Sasanggwa Segaeaguaneui Bokwon: Sumak Kawsayae Daehan Ironjeok Jeobkun (The thought of Indigenous and the Recovery of Their Worldview: Theoretical Approach on Sumak Kawsay),” *Jungnammi Yeongu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 31, No. 2, pp. 127-160.
- Lee, Seong-Hun (2017), “Correa Jeongkwongwa Wonjumin Undongeu Juyo Galdung Yoin (Major Causes of Conflict between the Correa Administration and Indigenous Movements),” *Jungnammi Yeongu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 36, No. 3, pp. 169-194.
- León, Osvaldo and Sally Burch (2012), “Ecuador: diálogo esquivo,”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No. 473, pp. 26-28.

- Le Quang, M. and Tamia Vercupitere(2013), *Ecosocialismo y Buen Vivir. Diálogo entre dos alternativas al capitalismo*, Quito: Cuadernos Subversivos.
- Macas, Luis(2010a), "Sumak Kawsay: la vida en plenitud,"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No. 452, pp. 14-16.
- \_\_\_\_\_(2010b), "El Sumak Kawsay," *Yachaykuna Saberes*, No. 3, pp. 13-39.
- Mignolo, Walter(2005), *La idea de América Latina*, Barcelona: Gedisa.
- Quijano, Aníbal(2012), "Bien vivir: entre el desarrollo y la descolonialidad del poder," [https://www.vientosur.info/IMG/pdf/VS122\\_A\\_Quijano\\_Bienvivir---.pdf](https://www.vientosur.info/IMG/pdf/VS122_A_Quijano_Bienvivir---.pdf)
- Ramírez, Franklin(2013), "Ecuador Jeongbuwa Sahoeundong Seryeokeui Gyeolbeol, Suyong, Bunhwa Guajeong(Desencuentros, convergencias, polarización[y viceversas]. El gobierno ecuatoriano y los movimientos sociales)," in Dal-Kwan Kim(coop.), *Ecuador, Bolivia and Peru. Change and Challenge of Andean States in the Era o Post-Neoliberalism*, Pajucity: Hanwool, pp. 77-95.
- Ramírez, René(2010), "Socialismo del Sumak Kawsay o biosocialismo republicano," in SENPLADES, *Socialismo y Sumak Kawsay. Los nuevos desafíos del socialismo en América Latina*, Quito: SENPLADES, pp. 55-76.
- SENPLADES(2009), *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09-2013: construyendo un estado plurinacional e intercultural*, Quito: SENPLADES.
- \_\_\_\_\_(2013), *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13-2017: todo el mundo mejor*, Quito: SENPLADES.
- Vanhulst, Julien(2015), "El laberinto de los discursos del Buen Vivir: entre Sumak Kawsay y Socialismo del siglo XXI," *Polis*, No. 40, pp. 1-25.
- Vega, Silvia(2014), "Sumak Kawsay, feminismos y post-crecimiento: articulaciones para imaginar nuevas utopías," in G. Endara(coop.), *Post-crecimiento y Buen Vivir*, Quito: FREDRICH-EBRT-STIFTUNG, pp. 353-373.
- Viteri, Carlos(2002), "Visión indígena del desarrollo en la Amazonía," *Polis*, No. 3, pp. 1-6.
- Walsh, Catherine(2009), *Interculturalidad, Estado, Sociedad. Luchas (de)coloniales de nuestra época*, Quito: Ediciones Abya-Yala.

Article Received: 2019. 01. 22.

Revised: 2019. 02. 09.

Accepted: 2019. 02. 10.